



▶ 다음 질문으로 서로의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Q. 맑은 날씨엔 어떤 활동을 가장 즐기세요?

▶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찬 336장)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찬 377장) / 약할 때 강함 되시네

▶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 모임기도 (셀리더 또는 맑은 사람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 금주 말씀 되새기기 /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1.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야 할까?

고난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도 보듯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빠른 대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러한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낼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태도로 시험과 환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2.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삶이 신앙의 본보기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다윗 등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희생과 기도로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헌신 덕분이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3.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배들도 본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심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특히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4.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생각하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시듯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말합니다. 헬라어 ‘παιδεία’(파이데이아)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훈육과 교육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연단을 통해 신앙이 더욱 순수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단련 될 것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연단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 ◎ 고난을 이길 세 가지 노하우가 담긴 그림  
아래 세 가지 그림들을 통해 금주 선포된 말씀을 떠올려보세요!



▶ 아래의 질문으로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가지세요!

1. 나는 과거에 연단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연단을 통해 어떻게 변화 되었나요?
2. 현재 받고 있는 연단이 있나요? 그 과정을 나는 어떻게 받아드리고 있으며, 이 연단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말해봅시다.
3.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다윗 등) 중에서 나에게 가장 친근한 선배는 누구인가요? 그에게 배운 인상 깊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 나누었던 내용과 더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구하는 기도**

- 우리가 직면한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 '왜'라는 질문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선배들을 본 받아 살길 바라는 기도**

-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희생과 기도,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세우길 원하는 기도**

- 예수님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그 믿음을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길 원합니다.

▶ 지금은 '셀 헌금' 시간입니다.

-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 셀 리더가 드러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